

발표개요

“한국음악의 감정표현과 시김새”

송혜진(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절제 지향’과 ‘표출 지향’의 음악 전통

한국음악의 전통에서 감정 표현의 문제는 양가적이다. ‘절제’를 통한 중용의 미를 추구하느냐, 희노애락의 감정 표출을 통해 마음속의 시름을 흥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표현 양식의 차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음악 아이디어와 맞닿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가야 출신의 악사 우륵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구체화된 음악이상으로 자리 잡았다. 악사 우륵이 통일 신라로 망명하여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노래와 춤, 연주를 가르쳤는데, 스승의 음악을 배우던 신라의 제자들은 전곡을 이수하기도 전에 이 악곡들이 ‘지나치게 표출적이다’라고 느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스승 앞에서 연주해보였는데, 이때 우륵은 제자들의 행동에 당황했으나 마침내 눈물 날만큼 감동했다면서 호평을 남겼다. 그들이 들려준 음악이 ‘즐겁고 기쁘지만 질탕한 쪽으로 흐르지 않았고, 슬프지만 마음 상할 정도의 비통함으로 치닫지 않았으니 정녕 ‘바르다’ 하겠다’는 평가였다. (樂而不流 哀而不悲可正) 이때 우륵이 언급한 ‘바르다(正)’는 ‘좋은 음악’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음악의 ‘정악(正樂)’, 또는 ‘대악(大樂)’의 줄기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음악의 윤리적인 효과와 교육적인 면이 중시되면서 감정 표현의 양식은 정형화되었다.

한편, 우륵의 신라제자들이 스승의 음악을 언급할 때 사용된 한자 ‘번(繁)’은 ‘많다’, ‘번거롭다’, ‘뒤섞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음(淫)’은 음란하다는 뜻 외에 ‘어지럽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 문자들은 감정표출이 자유로운 음악 현상으로 풀이되며, 우리나라의 음악 전통 중 민간 음악의 양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개개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다양한 음악어법들이 탄생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이 같은 표출 지향의 음악이 시대의 예술음악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음악의 감정표현 요소와 시김새

감정표현의 문제에서 이처럼 대비되는 한국음악의 전통은 각각의 지향성에 맞는 음악 표현 요소를 구축했다. 한국음악에서 감정의 표현은 조와 장단(템포와 리듬), 음의 진행(구성음-선율-음형), 액센트, 숨(pause), 다이내믹스(剛柔-農談), 장식기법(농현 등), 음색 등의 다양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각각의 음악요소와 결합방식은 ‘절제 지향’의 음악과 ‘표출 지향’의 음악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연주자들은 각 영역의 음악을 실연할 때 전체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악기 및 발성의 특성과 디테일(맛/멋/미)을 살리기 위한 기교 연마에 몰입한다. 이번 학술연구의 주제인 ‘시김새’는 연주자들이 ‘각각 고유의 디테일을 살려 음악의 맛을 살리고 멋과 미의 체험을 유도하는 음악적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김새는 본음의 앞이나 뒤에 음가(音價)가 있는 장식음을 붙여 본음을 꾸며주는 것(지시된 것-음고 및 시가와 연계된 음악의 질서)과, 거의 음가 없이 본음의 끝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며 흔드는 기법(지시되지 않은 것-가변적/유동적)이 크게 한 덩어리로 표현된다. 그리고 어느 음을 기준으로 위나 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것, 어느 음을 기준으로 위로 움직이는 것, 어느 음을 기준으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양하게 결합됨으로써 매우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주자들은 음악현장에서 각자의 언어로 '시김'하는 법을 명명해왔고, 현대 학계에서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문자화하는 관행이 굳어짐에 따라 장르별, 악기별 용어들이 체계 없이 열거되고 있는 형편이다. (퇴성·전성의 예/ 치는목·감는목·굴리는목·쫓시는목·쭈시는목의 예/ 서침·올리더름·떠이어의 예)

이번 발표에서는 '감정표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례를 판소리 <춘향가>에서 발췌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춘향가의 주요 등장인물(성춘향/이몽룡/방자/향단)의 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희노애락) 유형을 선별하고, 해당 부분의 어떤 표현들이 상황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기능하는지, 청중들과의 공감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동일 부분이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주목해보겠다.